

협회소식_ kira news

이사회

■ 제12회 이사회

2008년도 제12회 이사회가 지난 12월 16일 오후 2시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협의사항으로 건축사법 중 공제사업 규정에 관한 건, 건축법시행령 중 구조안전 등에 관한 건, 홍보사업비 집행에 관한 건, 통합 정관(안)에 관한 건과 부의 안건으로 회관관리규정 개정의 건, 건설기술자 회비 및 수수료 부과·수납에 관한 운영규정 개정의 건, 제43회 정기총회 일시 및 장소 결정의 건, 한국건축산업대전 전시사업단 설치 운영의 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건, 2008년도 세출예산 이월 승인의 건, 2009년도 1~2월 임시예산(안) 승인의 건,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이 논의됐다.

주요 의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건축사법 중 공제사업 규정에 관한 건
 - '보증공제' 관련 건축사법 개정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함.
 - ▷ 공제사업계획서는 이영호 이사가 발언한 내용을 토대로 좀 더 검토·보완
- 제2호: 건축법시행령 중 구조안전 등에 관한 건
 - 구조, 파난 등 건축물 안전과 관련한 종합적인 검토 및 대응을 위하여 TF팀을 구성(조총기 이사 주관)하기로 하고, 추진방향 및 예산집행계획 등에 대해

서는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기로 함.
▷ 건축사 업역 침해 및 명예훼손 등에 관한 법적대응, 건축구조계산 프로그램 개발 보급, 건축사업무에 관한 대국민 홍보 등

- 제3호: 홍보사업비 집행에 관한 건
 - 회장이 최대한 절약하여 집행토록 하고, 협회와 회원들을 위해 반드시 지대한 업적을 남기기로 함.
- 제4호: 통합 정관(안)에 관한 건
 - 단체간 합의가 되면, 우리 협회 10인 대표자회의에서 최종 검토 후 다시 논의하기로 함.

▲ 부의안건

- 제1호의안: 회관관리규정 개정의 건
 - 개정규정(안) 중 제7조 제1항 '근무시간 이후'를 '근무시간외'로 제13조 제7항 제2호 '시민단체의 공익적 행사'를 '공익적 행사'로 변경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승인함.
 - 송평문 부회장이 지적한 회관관리상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상근이사가 현황과 대책 등을 수립하여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기로 함.
- 제2호의안: 건설기술자 회비 및 수수료 부과·수납에 관한 운영규정 개정의 건
 - 개정규정(안) 중 별표1의 등록비는 현행대로, 부칙 제2조는 원안대로 승인하되,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는 행정위원회에서 좀 더 검토하기로 함.
- 제3호의안: 제43회 정기총회 일시 및 장소 결정의 건
 - 제43회 정기총회 일시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결정함.
 - ▷ 일 시: 2009년 2월 25일(수) 10시
 - ▷ 장 소: 본협회 회관 1층 대강당
- 제4호의안: 한국건축산업대전 전시사업단 설치 운영의 건
 - 원안대로 운영키로 하되, 단장 등의 선임에 대해서는 회장에게 위임함.
- 제5호의안: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건
 - 위원장은 이철호 고문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하기로 함.
 - ▷ 다만, 위원 중 1인 정도는 여성건축사를 포함.
- 제6호의안: 2008년도 세출예산 이월 승인의 건

- ▷ 원안대로 승인함.
- 제7호의안 : 2009년도 1~2월 임시예산
(안) 승인의 건
- ▷ 원안대로 승인함.
- 제8호의안 :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 ▷ 원안대로 승인함.

위원회 개최 현황

■ 제3회 회관지분정리합동위원회

제3회 회관지분정리합동위원회 회의가 지난 12월 18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회관대지 지분정리에 관한 사항과 서울건축사회 관리비 등 정산에 관한 사항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회관대지 지분정리에 관한 사항
 - 회관대지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서울건축사회의 지분비율에 따른 금액이 산정되었으므로, 대지 지분정리에 대해서는 현금정산 또는 건물매입 등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문제는 본협회 이사회 및 총회에서 논의토록 함.
- 제2호 : 서울건축사회 관리비 등 정산에 관한 사항
 - 서울건축사회 관리비 등의 정산은 본협회와 서울건축사회의 원만한 합의와 비용부담을 최소화하는 원칙에 따라 아래와 같이 협의함.
 - ▷ 서울건축사회 지분금액에서 임대기준액(전세)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시중금리 4.3%를 적용한 이자액을, 서울건축사회 관리비와 서울건축사회 대지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제세금과 상쇄하여 처리한다.(※ 결론적으로 회관지분 정리전까지는 서울건축사회는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고, 서울건축사회 대지지분에 대한 재산세 등 제세금은 본협회에서 납부한다.)
 - ▷ 관리비 등의 정산원칙에 따라 서울건

축사회가 기 납부한 관리비에 대해서는 회계연도가 경과되어 반환 등은 세무회 계상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서울건축 사회에서 납부해야 할 회관지분관련 소송비용과 상쇄하고 종결한다.

■ 제13회 프레스센터 운영위원회

제13회 프레스센터 운영위원회 회의가 지난 12월 24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홍보동영상 시사의 건과 ‘건축문화신문’ 논설위원 및 건축사 기자 위촉에 관한 건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홍보동영상 시사의 건
 - 1, 2차 시사회로 건축사 소개, 협회 업무 등에서 홍보동영상 내용이 완성도 있게 수정됨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 나온 수정사항을 끝으로 홍보동영상 제작을 완료하기로 함.
- 제2호 : ‘건축문화신문’ 논설위원 및 건축사 기자 위촉에 관한 건
 - ‘건축문화신문’ 논설위원 위촉은 프레스센터 운영규정 범위 내에서 건축문화신문 편집위원회에 위임하기로 하고, 건축사 기자 위촉은 시·도 홍보담당 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임원 중 1인을 시·도건축사회에 추천요청하기로 함.

■ 제12회 법제위원회

제12회 법제위원회 회의가 지난 12월 29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현장조사검사확인업무제도 개선 추진 방안에 관한 건과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및 업무지침 개정안에 관한 건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현장조사검사확인업무제도 개선 추진방안에 관한 건
 - 동 제도의 법제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단계별로 추진하기로 함.
- ▷ 1단계 : 업무내용 개선 – 조사검사서 서

식(허가시 · 사용승인시)

- ▷ 2단계 : 업무대행료 지급기준, 검사자의 지정 및 행정절차 개선, 업무의 대상과 범위 확대(중간검사단계 신설)
- 제2호 :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및 업무지침 개정안에 관한 건

- 동 기준 및 업무지침이 건축사의 업무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기로 하며, 침해의 내용이 파악되면 검토의견을 관계기관에 제출하기로 함.

▲ 기타사항

- 건축사법 및 건축법에서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 고시되지 않은 내용을 조사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기로 함.

2009년도 시무식 개최



대한건축사협회는 지난 2009년 1월 2일 오전 11시 건축사회관 대강당에서 대한건축사협회와 서울시건축사회, 서울시복지회 임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무식을 갖고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

대한건축사협회 한명수 회장은 “취임 시 회원여러분들께 약속드린 대로 최선을 다하며 실천하는 회장이 되고자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회원여러분과 협회 그리고 건축계의 미래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건축계 내부에서 협력하고 화합한다면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가 조성된 것 같다”고 신년사에서 밝혔다. 아울러 서울건축사회 강희달 회장은 신년사 중간에 시 한편을 낭독, 새해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갖는 시간을 갖게 했다. 이어 참가한 역대회장의 덕담이 섞인 인사말이 있었으며, 3개 단체 임직원은 새해를 힘차게 출발하자는 구호와 함께 떡국 점심식사를 함께 하며 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ACE 소식지 '대한건축사협회와의 교류협력' 기사 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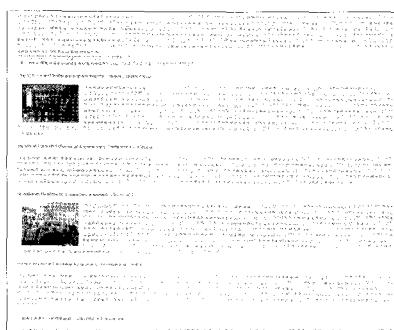
대한건축사협회는 지난 2008년 6월 30일 유럽건축사협의회(Architects' Council of Europe, 이하 ACE)¹⁾와 건축사자격 상호인정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아래 ACE와 적극적인 교류협력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러한 교류협력 추진의 일환으로 우리협회에서는 유하니 카타이넨(Juhani Katainen)

ACE 회장을 비롯한 ACE 대표단을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된 제13차 아시아건축사대회에 초청하여 ACE 대표단이 개회식, 기조연설 등 주요행사에 축하사절로 참가한 바 있다. 대회 종료 후, 양 단체 대표단은 서울의 본협회로 이동하여 카타이넨 회장에게 우리협회 명예회원증

을 수여하는 행사를 갖고, KIRA-ACE 교류협력회의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뜻 깊은 방한일정을 마무리한 후 ACE 회장을 비롯한 대표단 전원이 우리 협회에 감사서신을 보내왔으며, 새로 발간된 소식지 ACE INFO의 2008년 12월호에 다음과 같이 관련기사를 게재하였다.



유럽건축사협의회(ACE)대표단 대한건축사협회 방문



ACE Info 화면캡처 / ACE Info 링크
<http://www.ace-cae.org/MemberN/Content/EN/pub/info/info042.html>



The Team at the Secretary of the ACE with Happy and Prosperous New Year!
ACE에서는 용인미술촌에서 촬영한 한국 어린이들의 이미지를 사용한 연하장을 보내왔다.

[관련기사 원문 – 「ACE INFO」 2008년 12월 호에서 발췌]

The 13th Asian Congress of Architects – Busan, South Korea

The President of the ACE-CAE, at the invitation of the Korean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KIRA) led a delegation to the 13th Asian Conference of Architects for the period 29th October to 3rd November 2008. The delegation consisted of the President, Juhani Katainen, the rapporteur of the ACE-CAE on Trade in Services, Ian Pritchard (UK) and the Secretary General, Alain Sagne. This event provided a valuable opportunity to enhance links with Asian colleagues and organisations and, more particularly, provided an opportunity for the ACE-CAE to initiate formal discussions with the KIRA on the subject of how to progress the negotiation of a profession-to-profession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on architectural services following first contacts that took place

back in July 2008 on the fringes of the UIA Congress in Turin. It was decided to establish a Joint Working Party with representatives from the two Organisations for this purpose and the first meeting of this group is scheduled at the very beginning of 2009 in Brussels. The aim of the negotiations will be to ensure that an agreement on architectural services will be annexed to any EU-Korea Free Trade Agreement that emerges from ongoing discussions.

[번역문]

제13차 아시아건축사대회 – 대한민국, 부산 유럽건축사협의회(ACE) 회장은 대한건축사협회(KIRA)의 초청을 받아 제13차 아시아건축사대회 참석차 2008년 10월 29일부터 11월 3일까지 대한민국을 방문했다. 대표단은 유하니 카타이넨(Juhani Katainen) 회장, ACE 서비스교역 담당 간사인 이안 프리차드(Ian Pritchard, 영국), 알랑 산니르(Alain Sagne) 사무총장의 3인이다. 본 협의회는 이번 행사에 참가하여 아시아의 건축사 및 관련기관과 교류를 증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특히 지난

토리노 UIA 총회에서 얻은 결실 중 하나인 KIRA와의 건축사자격 상호인정을 위한 교류협력 추진의 일환으로 이번 방문에서 건축사단체간 MRA를 위한 공식적인 첫 회의를 개최할 수 있었다.

같은 목적으로 양 기관은 각 기관 대표로 공동워킹그룹을 조직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며 2009년 초 브뤼셀에서 첫 회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워킹그룹 협의의 목적은 건축사 서비스에 관한 양 기관의 동의내용(건축사자격 상호인정)이 한-EU FTA 체결시 부속서에 포함되게 하는 데 있다.

1)유럽건축사협의회 (Architects' Council of Europe, 약칭 ACE)는 유럽지역의 31개 국가 건축사단체(유럽연합 회원국 및 준회원국과 스위스, 노르웨이)들을 회원으로 하는 전문직단체이다. 본부는 벨기에 브뤼셀에 있으며, 유럽지역 450,000 건축사들의 이익을 대변한다.

1990년 5월 11일 이태리 트레비소에서 (구)유럽연합 건축사교섭위원회(Liaison Committee of the Architects of the United Europe)와 (구)유럽건축사 협의회(Council of European Architects)의 통합으로 태동하게 되었다.

2008년도 건축사자격시험 최종 합격자 자격증교부



2008년도 건축사자격시험의 최종 결과가 구립 26일 발표됨에 따라 지난 1월 7일 오후 2시 건축사회관 대강당에서 최종합격자에 대한 소양교육과 자격증교부식이 개최됐다. 이날 자격증을 수여받게 된 최종합격자는 총 377명으로 남성 318명(84.4%), 여성 59명(15.6%)이다.

수여식에서 대한건축사협회 한명수 회장은 “건축사자격시험 최종합격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린다. 오늘이 있기까지 여러분들이 쏟은 노력과 열정에 대해서도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제 건축사 자격은 세계화에 발맞춰 인증된 교육과 수련을 통한 높은 도덕적 가치와 기준 그리고 고도의 전문성과 지속적으로 견증되어지는 자격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경쟁질서에 맞춰 경쟁력을 갖춘 건축전문가로서 능력과 비전을 키우며 끊임없이 노력해야 사회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고 격려사를 낭독했다.

자격증 수여식에서는 지역별 최종합격자를 대표한 16명이 한명수 회장으로부터 자격증을 수여받았다.

이어 ‘대한건축사협회안내 및 회원가입 절차’ 안내를 끝으로 건축사로서 첫발을 내딛었다.

(2008년도 건축사자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본지 90페이지 참조)

건축계소식

철학아카데미 건축강좌_건축의 들뢰즈

철학아카데미에서는 2009년 1월 9일부터 2월 27일까지 건축 강좌를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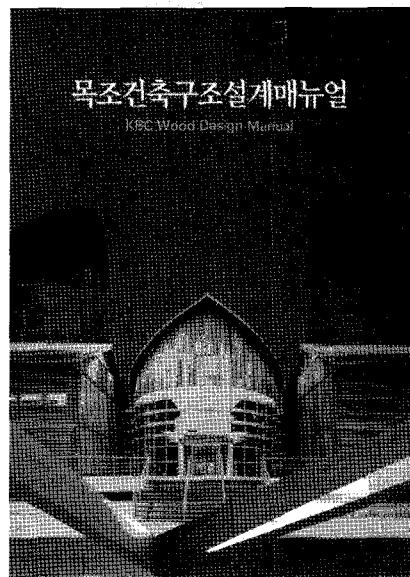
철학아카데미에서는 2003년부터 여름, 겨울방학에 건축 강좌를 개설해왔는데, 이번 강좌에서는 들뢰즈가 변화시킨 건축의 지형에 대해 8명의 건축 이론가들이 공동으로 강좌를 진행한다. 철학아카데미에서는 이번 강좌에 대해 “1990년대 이후의 건축은 들뢰즈의 영향과 분리해서 설명하기 어렵다. 하지만 들뢰즈가 건축에 대해 언급한 대목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이 비대칭성은 기묘하기까지 하다. 그것은 들뢰즈의 사고가 건축의 사정을 전혀 고려치 않고 덕쳐온, 이질적이고 우발적인 동인이었음을 의미한다. 건축사는 자신의 건축에 창작적 움직임을 유발시키는 이 동인과 고투하는 가운데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양상을 촉진시킬 수 있었다. 그렇다면 들뢰즈는 건축에서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을까? 건축사가 벌인 고투가 치열했다면, 그것은 프랜시스 베이컨의 일그러진 인물화만큼이나 뭉그러지고 원래 모습에서 멀어진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 강좌는 건축에서 온전히 보존된 들뢰즈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그 일그러짐을 탐사하고자 한다.”고 소개했다.

· 일정 및 담당교수

- 1월 9일 : 1강_실험 / 정만영(서울산업대학 건축학부 교수)
- 1월 16일 : 2강_다양체 / 권태일(동의대학 건축공학과 전임강사)
- 1월 23일 : 3강_운동 / 김원갑(경일대 건축학부 교수)
- 1월 30일 : 4강_변형 / 조준배(건축도시 공간연구소 설계연구실장)
- 2월 6일 : 5강_다이어그램 / 정인하(한양 대 건축학부 교수)
- 2월 13일 : 6강_바로코 / 조현일(엔폴드 주식회사 대표)
- 2월 20일 : 7강_리듬 / 장용순(건축사사무소 기오현 실장)
- 2월 27일 : 8강_장소 / 전영훈(중앙대 건축학부 조교수)

신간안내

목조건축구조설계매뉴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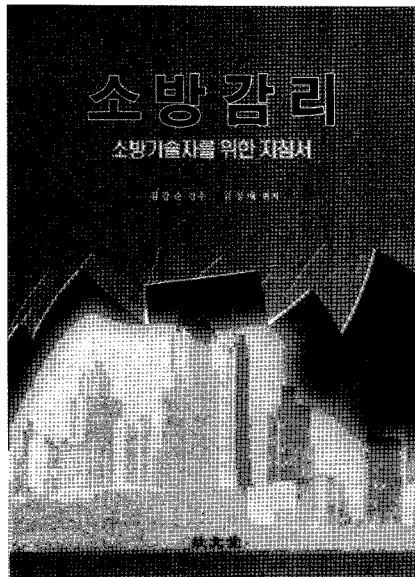
대한건축학회 | 400쪽 | 기문당

이 책은 대한건축학회에서 ‘건축구조설계 기준-KBC’의 제8장 목구조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 상업용 목조건축물과 4층 목조공동주택의 구조설계가 가능하게 되었으나 목조건축의 구조설계를 위한 매뉴얼과 구조설계 상세가 생략되어 있고, 경험 축적도 미흡하기 때문에 구조설계 실무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실무자가 구조설계를 정확하고 용이하게 수행함은 물론 목구조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간한 것이다.

이 매뉴얼은 상자 안에 건축구조설계기준의 규정을 먼저 수록하고, 해당 기준에 대한 매뉴얼과 구조설계의 예제를 차례로 실어 독자가 기준과 매뉴얼의 내용을 구분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 문의 : 02-2296-8188

소방감리_소방기술자를 위한 지침서



김갑순 감수·김성배 편저 | 860쪽 | 기문당

신간 '소방감리_소방기술자를 위한 지침서'는 소방기술자들의 감리실무 활동에 있어 꼭 알고 있어야 할 기본 지식들을 정리해놓은 책이다.

이 책에서는 소방감리총론과 감리착수, 도서검토, 완공감리, 감리행정, 감리건축, 성능시험, 방재기준, 화재안전기준, 질의회신 등의 내용을 소방감리원 입장에서 정리하고 있으며, 김갑순 대전소방본부 행정과장의 감수와 각 시·도 소방본부 관계자들의 현장실무 자료 제공 및 조언으로 완성돼 전문성과 현장성을 높였다.

저자는 건축방재관련 부분을 포함해 일부 증보했으나 향후에도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에서는 보정해 나갈 계획을 밝히며, 소방감리의 체계적인 현장관리업무에의 가이드 역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밝혔다.

· 문의 : 02-2296-8188

〈바로잡습니다〉

지난 2008년 10월호부터 본지 특집으로 2008한국건축문화대상 수상작을 매월 나눠 게재하고 있으며, 대상 수상작 특집에 한해 설계자 이름에 대한건축사협회 회원임을 나타내는 '정회원' 표기를 기재하지 않았으나, 회원의 요청에 따라 '건축사자지면집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 대상 수상작품에도 협회 정회원에 대해서는 '정회원'을 표기키로 하였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정정코자 합니다.

O2008년 10월호 게재분 수상작 정정

-조만식기념관 & 웨스트민스터홀

설계자 이성관/정회원,(주)건축사사무소
한울건축

-아임삭 오창 공장

설계자 신준규/정회원,(주)건축사사무소
시그에이

-김포 수기마을 힐스테이트

설계자 이승연/정회원,(주)원양 건축사사무소

-용인 동백 아펠바움

설계자 최삼영/정회원,(주)가와 종합건축사사무소

-백남준 아트센터

설계자 김병현/정회원,(주)창조 종합건축사사무소

-워커힐 호텔 아카디아

설계자 윤세한/정회원,(주)해안 종합건축사사무소

-관야산 휴먼시아

설계자 박용민/정회원,(주)종합건축사사무소
무소 명선엔지니어링

-루트하우스

설계자 곽희수/정회원,(주)이엠 건축사사무소

O2008년 11월호 게재분 수상작 정정

-단원어린이도서관

설계자 조민석/정회원, 단아 건축사사무소

-제주 4.3평화 기념관

설계자 이상립/정회원,(주)공간 종합건축사사무소

-테이스

설계자 곽희수/정회원,(주)이엠 건축사사무소

O2008년 12월호 게재분 수상작 정정

-랜드마크 하우스

설계자 김좌동/정회원,(주)아울 건축사사무소

-엔씨소프트 R&D센터

설계자 이필훈/정회원,(주)정림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 상담실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강남구건축사회/517-3071 · 강동구건축사회/477-0949 · 관악구건축사회/888-2490 · 광진구건축사회/446-5244 · 구로구건축사회/864-5828 · 금천구건축사회/859-1588 · 노원구건축사회/937-1100 · 도봉구건축사회/3494-3221 · 동대문구건축사회/9327-0503 · 동작구건축사회/814-8843 · 마포구건축사회/338-5556 · 서대문구건축사회/324-3810 · 서초구건축사회/347-6100 · 성동구건축사회/2292-5855 · 성북구건축사회/927-3236 · 송파구건축사회/423-9158 · 임천구건축사회/2644-6688 · 양동포구건축사회/2634-3102 · 용산구건축사회/719-5688 · 은평구건축사회/357-6833 · 종로구건축사회/725-3914 · 중구건축사회/2266-4904 · 중랑구건축사회/496-3900

■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677

■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8880~3

■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6

■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485-2813~7

■ 울산광역시건축사회/(052)266-5651

■ 경기도건축사회/(031)247-6129~30

고양지역건축사회/(031)963-8902 · 광명건축사회/(02)2684-5845 · 동부지역건축사회/(031)563-2337 · 부천지역건축사회/(032)327-9554 · 성남지역건축사회/(031)755-5445 · 수원지역건축사회/(031)246-8046~7 · 시흥지역건축사회/(031)318-6713 · 안산건축사회/(031)460-9130 · 인양지역건축사회/(031)449-2698 · 북부지역건축사회/(031)876-0458 · 이천지역건축사회/(031)635-0545 · 파주지역건축사회/(031)945-1402 · 평택지역건축사회/(031)857-6149 · 오산·화성지역건축사회/(031)234-8872 · 용인지역건축사회/(031)336-0140 · 광주지역건축사회/(031)767-2204

■ 강원도건축사회/(033)254-2442

강릉지역건축사회/(033)653-9680 · 삼척지역건축사회/(033)533-6651 · 속초지역건축사회/(033)637-6621 · 영평정타지역건축사회/(033)374-6478 · 원주시역건축사회/(033)745-2906 · 춘천지역건축사회/(033)251-2443

■ 충청북도건축사회/(043)223-3084~6

청주지역건축사회/(043)223-3084 · 옥천지역건축사회/(043)732-5752 · 청원지역건축사회/(043)647-6633 · 충주지역건축사회/(043)842-3897 · 음성지역건축사회/(043)873-0160

■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2-4088

천안지역건축사회/(041)554-0070 · 광주지역건축사회/(041)858-5110 · 보령지역건축사회/(041)932-8890 · 아산지역건축사회/(041)549-5001 · 서산지역건축사회/(041)662-3388 · 무신지역건축사회/(041)662-3388 · 금산지역건축사회/(041)75-1333 · 연기지역건축사회/(041)866-2276 · 부여지역건축사회/(041)835-2277 · 서천지역건축사회/(041)952-2356 · 흥천지역건축사회/(041)632-2755 · 예산지역건축사회/(041)335-1333 · 태안지역건축사회/(041)674-3733 · 당진지역건축사회/(041)356-0017 · 계룡지역회장/(041)841-5725 · 청양지역회장/(041)942-5922

■ 전라북도건축사회/(063)251-6040

군산지역건축사회/(063)452-6111 · 남원지역건축사회/(063)631-2223 · 익산지역건축사회/(063)852-1515

■ 전라남도건축사회/(062)365-9944 · 364-7567

목포지역건축사회/(061)272-3349 · 순천지역건축사회/(061)726-6877 · 여수지역건축사회/(061)686-7023 · 나주지역건축사회/(061)365-9944

■ 경상북도건축사회/(063)744-7800~2

경산지역건축사회/(053)801-0386 · 경주지역건축사회/(054)772-4710 · 구미 지역건축사회/(054)451-1537~8 · 김천지역건축사회/(054)265-2651 · 문경지역건축사회/(054)552-1412 · 상주지역건축사회/(054)536-8855 · 안동지역건축사회/(054)853-4455 · 영주지역건축사회/(054)631-4566 · 영천지역건축사회/(054)337-0085 · 칠곡지역건축사회/(054)973-12195 · 포항지역건축사회/(054)278-6129 · 군위·의성지역건축사회/(054)383-8668 · 청도지역건축사회/(054)373-2332 · 고령·성주지역건축사회/(054)931-3577

■ 경상남도건축사회/(055)246-4530~1

거제지역건축사회/(055)636-6870 · 거창지역건축사회/(055)943-6090 · 고성지역건축사회/(055)673-0487 · 김해지역건축사회/(055)334-6644 · 마산지역건축사회/(055)245-3737 · 밀양지역건축사회/(055)355-1323 · 사천지역건축사회/(055)832-1301 · 양산지역건축사회/(055)384-3050 · 진주지역건축사회/(055)762-6434 · 진해지역건축사회/(055)547-4530 · 창녕지역건축사회/(055)532-9913 · 창원지역건축사회/(055)282-4364 · 통영지역건축사회/(055)883-4611 · 함안지역건축사회/(055)842-4530 · 하동지역건축사회/(055)883-4611 · 학연지역건축사회/(055)885-8683

■ 제주도건축사회/(064)752-3248

서귀포지역건축사회/(064)763-1010